제 119 호
2026년 10월 30일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박종헌 편집인 : 박수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2026 사천기지 공군 호국영령 추모행사





10월 22일 목요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 호국영령위령비에서 본회와 공군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사천시와 경남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사천기지 공군 호국영령 추모행사가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및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50여명의 전우회원들과 3훈비 장병, 대외기관 대표(사천 부시장, 시의회 회장,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등 2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가, 조총 발사 및 묵념, 호국영령께 대한 경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천지구 호국영령 위령비는 6.25전쟁 시부터 1962년 9월까지 사천기지에서 작전임무 및 훈련 중 호국의 넋으로 산화한 고 김영환 장군 등 45인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건립되었으며, 1973년 기지 확장개발로 자리를 옮겨 보관되었다가 공군사관학교 박물관까지 이동한 후에 201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건군 제63주년을 맞아 새롭게 사전기지 역사전시장 내에 위령비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부대 군사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공군을 대표하여 행사를 주관한 권영민 교육사령관은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 속의 번영임을 잊지 않고 세계적 강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회 박종헌 회장은 추모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영령들의 투혼은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공군의 든든한 뿌리이자 자부심이며, 우리 공군전우회와 공군은 선배님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보다 강한 공군력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사 후 본회 박종헌 회장은 사천시 부시장과 3훈비 부단장에게 각각 기념패를 증정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3훈비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공군전우회는 같은 날 열린 사천에어쇼 2026 개막식에 참석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여 K-방산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 행사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웅장하게 거행되었다.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특히 지상 전력의 위용과 더불어 조국의 하늘을 굳건히 지키는 공군의 정예 항공우주전력이 대거 출격하여 행사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공군의 핵심 전술정찰 자산인 RF-16이 힘차게 기수를 올리며 비행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홍해 위기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수행된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뛰어난 장거리 전략 공수 및 공중급유 능력을 과시했던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KC-330 ‘시그너스’가 KF-16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웅장하게 활주로 상공을 통과했다.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대한민국 공군 FA-50 및 미 공군 F-16 편대와 함께 한미 연합전투초계 편대를 구성해 비행함으로써 확고한 연합방위태세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선보였다.

이어 공군의 전략적 타격을 책임지는 4.5세대 전천후 전투기 F-15K 슬램이글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Ⅱ가 완벽한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 편대비행으로 영공 주권 수호의 위력을 뽐냈다. 장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순간은 지난 9월 22일 공군에 양산 1호기가 인도된 국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등장이었다. FA-50의 밀착 호위를 받으며 활주로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한 KF-21은 우리 손으로 개발한 최신예 전투기가 실전 배치의 궤도에 올랐음을 선포하며 지켜보는 예비역 공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겼다.

한편 부대 및 개인 포상에서도 공군의 공적이 빛났다.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완벽한 긴급공수 작전을 성공시킨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포상에서는 공군의 미래 항공우주전력 소요 창출과 합동작전 교리 발전에 헌신한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 조창모 대령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대한민국 공군이 첨단 무기체계와 유·무인 복합전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항공우주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

중앙회 회장단 일본 츠바사회 방문





본회 박종헌 회장 등 임원 10명은 일본 항공자위대 예비역 단체인 츠바사회 초청으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04년에 체결된 한·일 공군 예비역 단체간 교류증진을 위한 협정서에 의거 이루어진 행사로 격년제로 상호 방문중이며 이번 한국측의 공식방문은 2005년도 첫 방문을 시작으로 10회째 이어진 방문이다.

방문단 일행은 10월 12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츠바사회 스기야마 회장 등 임원의 영접을 받은 후 츠바사회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하였다.

이어서 항공자위대 중부방면대가 위치한 이루마기지(사이타마현), 햐크리기지(이바라키현) 등 부대를 방문하였으며, IHI 하늘미래관과 JAXA 츠쿠바 우주센터에서 일본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였고, 주일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이혁 대사를 접견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도가 더욱 증진되었으며, 민간외교 증진을 위한 예비역의 중요성과 역할 인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기회가 되었다.

2026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



공군본부와 본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가 지난 10월 20일 강릉기지 전공탑에서 제18전투비행단 주관으로 거행됐다.

활주로 공사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되었음에도 박종헌 회장을 비롯한 전우회원들과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회장은 회고사에서 "6·25전쟁 당시 조국을 구한 항공작전의 요람 강릉기지 선배님들의 투혼과 무스탕의 신화가 오늘날 최첨단 KF-21 보라매로 완벽히 계승되고 있다"며 본회가 공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찬 비상을 성원할 것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 등 6·25전쟁 중 총 7,851회 출격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공군의 전승 기록을 기리며 선배 전우들의 호국정신을 깊이 되새겼다.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 참석



박종헌 공군전우회장은 7월 3일 대구기지에서 거행된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에 대구지부 전우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선배 전우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공군군수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 회장은 전우회를 대표해 헌화하며, 1950년 7월 4일 적진으로 돌격해 장렬히 산화한 공군 창설 주역 이근석 장군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아울러 대구기지 지휘관 및 참모 등 후배 장병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영공 수호의 의지를 다지고 선후배 간 끈끈한 전우애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공군발전협회, 고려대와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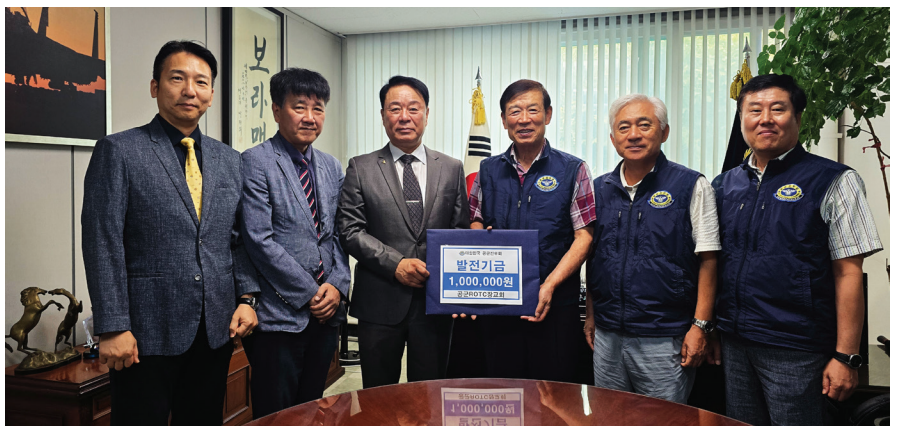


공군발전협회는 9월 9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과 국방 및 미래 항공우주(Aerospace)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마중물 삼아 공동·정책연구, 학술행사, 전문가 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나선다. 공군의 축적된 항공우주작전 전문성과 연구원의 탁월한 학술 역량이 융합되어, 협회 연구위원들의 심도 있는 학술 활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김동수 원장의 거시적 안목은 공군 미래 비전 수립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이 국가 안보와 우주항공력 발전을 이끄는 굳건한 동반자로 성장하길 기원한다.

공군ROTC장교회 회장단 내방



공군전우회 산하단체인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석찬) 회장단이 9월 21일 본회를 방문해 박종헌 전우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전우회 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석찬 회장과 회장단은 공군ROTC장교회의 주요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중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교회는 공익법인 지정 이후 장학사업, 학군 53기 임관 축하행사, 학군 55기 하계입영훈련 격려 등 후배 양성과 안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박종헌 회장은 장교회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원 위상 제고와 공군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임원진 내방



7월 8일,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순조회) 임영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본회를 방문하여 박종헌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올해초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임회장은 지난 6년간 순조회를 이끌어 온 송우영 전 회장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손이분 고문, 그리고 함께 순조회를 이끌어 갈 임경희 총무 등 3명과 함께 공군전우회와 공사총동창회, 그리고 공군학사장교회를 찾아 평소 관심과 도움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업무 협조를 위한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본회 박회장은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응원하며, 지금의 순조회를 안정시킨 손이분 고문과 송우영 전 회장의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했다.

항공우주안전단장, 이임인사차 예방



박대준 항공우주안전단장이 9월 28일 임기를 마치고 이임 인사차 공군전우회를 찾아 박종헌 회장을 예방했다.

박종헌 회장은 “지난 2년간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항공우주안전단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박 단장의 앞날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에 박대준 단장은 “재임 기간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우회 발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되는 부대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 이동계획도 후임 단장에게 충실히 인계하여 업무 협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공군발전협회, 협력업체세미나 개최



공군발전협회는 9월 30일 공군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2026년도 제2차 협력업체세미나’를 열고 군과 산·학·연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친선 체육행사에 이어 진행된 오찬 및 현안소개 세션에서는 공군본부 주요 실무진이 참석해 공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을 가졌다.

박종헌 공군발전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공군의 KF-21 1호기 인수는 민·군 협력의 찬란한 결실”이라며, “AI와 항공우주전력이 주도하는 미래 전장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굳건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예 항공우주군 도약을 뒷받침하는 민·군 융합의 소통 플랫폼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회장단 내방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김진홍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등 3명이 7월 8일 본회를 방문하여 박종헌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김진홍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주요 활동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본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본회 박회장은 지난번 방문 시 논의되었던 항공과학고 졸업 부사관들의 가점 적용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가 많은 곳에서 모범을 보이며 큰 역할을 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프동호회 총무단회의



본회 골프동호회에서는 7월 28일 수원체력단련장에서 총무단회의를 진행하여 단체별 회원현황 정비계획을 공지하고 11월 말까지 회원현황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팀수 조정계획과 체력단련장 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6년도 친선골프대회는 11월 4일(수)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대회 참가규모는 총 43개팀 172명이며 세부 사항은 진행위원회에서 별도 수립할 계획이다. 진행위원장에는 학사회 박영민 회원이 추대되었고, 경기 진행위원으로는 방공회 김영욱, 학사회 홍창표, 군무원회 김진걸 회원이 수고해주기로 하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월 22일 취임식을 갖고 정예 '전사공동체' 육성과 전방위 합동작전 역량 강화를 천명했다. 육사 46기인 강 장관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작전 및 국방정책 전문가로 올해 주사우디 대사로 재직하며 중동 재외국민 피신 작전인 '사막의 빛'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강 장관은 "지상·해상·영공 등 모든 전장에서 적을 압도하는 정예 전사가 돼야 한다"며,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와 함께 신속 전개 및 압도적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핵심 과제로 △전사공동체 개념 정립 △실질적 합동성 중심의 부대구조 개편 △상시 실전 훈련 체계 정착을 제시하고 국방가족 복지 개선도 약속했다. 강 장관은 "적에게는 치명적이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헌법 수호의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7월 15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해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진 의장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 통합막료장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단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뜻을 모았으며, 연례 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등 다영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한미·한일 양자회담을 병행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실전적 군사교류, 정보 공유 강화를 다짐하며 역내 평화 수호를 위한 3국 안보 공조를 한층 더 공고히 다졌다.

'천궁-Ⅱ' 첫 전력화 작전 돌입



순수 국내 기술의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 올해 첫 전력화 장비가 실전 배치를 마치고 8월 1일 정식 작전에 돌입했다. 이로써 탄도미사일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우리 군의 방공망은 더욱 강화되었다. 여기에 2020년대 후반 종말단계 상층방어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까지 전력화되면, 고도와 범위를 대폭 넓힌 완벽한 '다층방어체계'가 완성된다.

우리 군은 천궁-Ⅲ, L-SAM-Ⅱ 및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차세대 요격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6 서울안보대화(SDD)' 개최



국방부는 9월 7~9일 '혼돈의 시대, 새로운 공존을 향하여'를 주제로 제15회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4개국 국방장관과 6개국 국방차관을 포함해 67개국 안보 전문가 1천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국제 평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대화를 역설했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무력충돌 예방을 위한 갈등 관리와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우주 및 사이버 안보 등 미래 항공우주작전과 직결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며 다변화하는 안보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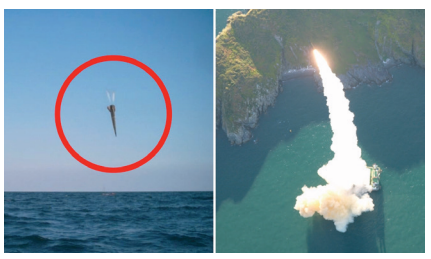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축소, 실시되었다.

합참과 연합사는 이번 연습에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연합·합동 전(全)영역작전' 시나리오를 적용,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당초 8월 27일까지 계획하였으나, 미측의 요구로 21일까지 시행하였다.

우리 군 1만 8천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사이버·드론 공격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전적 대응 역량을 집중 검증하였으며, 합참은 "한미는 UFS 연습의 본래 목표를 빈틈없이 달성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독자 기술 극초음속 비행체 첫 시험발사 성공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가 지난 10월 8일 성공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환경에서 초고온 내열 소재와 정밀 유도·제어 기술, 저고도 불규칙 변칙 기동 성능을 입증하였다.

HGV(Hypersonic Glide Vehicle)는 추진체 분리 후 별도 동력 없이 고도의 공기역학 제어로 활공하며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비행체로,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포물선 궤적을 벗어나 적 방공망의 탐지와 요격을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다. 현장을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진을 격려하고 신속한 실전 배치를 당부하였으며, 군은 오는 2035년까지 전력화를 추진하여 향후 대한민국 공중·우주 전략타격 역량과 독자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장관, 공군 제1전투비행단 현장지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14일 정예 조종사 양성의 요람이자 서·남부권 영공방위의 핵심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축적된 힘이 모여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정예 전투조종사 양성과 빈틈없는 영공방위 임무 완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이전 후보지(전남 무안)를 확인하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부와 군이 원팀이 되어 임시배치 및 이전 과업을 완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병 오찬에서는 엄정한 군 기강과 전사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필승공군 육성을 당부했다.